



예우 산악회

어제 그리고 내일로

이 해 연

- 이화여대 국문학과졸
- 전 중등교사
- 독서지도사
- 예우산악회 부회장

예우 산악회는 1980년 4월 16일 35명을 회원으로 처음 조직되어 서태균 명예회장(현 서울시 산악연맹 이사)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당시에 산행과 더불어 봉사 활동을 대외 기치로 걸었으나 해가 거듭되면서 회원들간의 인화가 문제되어 20명을 제명시키는 등 위기를 맞았다.

그 후 유명무실하던 예우 산악회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0년 12월 열성 회원 몇몇을 영입하면서였다. 게다가 94년 12월 13일 서울시 산악 연맹 가입을 계기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정수택 회장(현대 양복점 대표)이 이끌어오고 있다.

현재 예우 산악회의 회원은 20대에서 60대까지 45명에 이르는데 개인 사업가, 은행 지점장, 교사, 공무원, 대학원생 등 직업도 다양하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회원의 공개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기존 회원의 주위에서 산악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예우 산악회는 월 1회 정기 산행과 정기 모임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열성적인 회원들은 매주 산행을 하고 있다. 또한 서태균 명예회장의 지휘 아래 95, 96년 서울시 산악연맹 주최 산악 마라톤 대회 심판으로 전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한 바 있으며, 97년 5월 11일 제5회 대회에서도 전 회원이 심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96년 1월 17일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연맹에서 수여하는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또 올 3월에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산에서 시산제를 성대하게 치르기도 했다.

예우 산악회의 가장 큰 특징은 뒀니 뒀니 해도 가족적인 분위기, 이것은 산악회를 창립한 서회장이

- ♡ 4월 13일 식목행사를 마치고 뒀줄 중앙(서태균 명예회장)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 김동후(한일은행 구이동지점장)
- 하병훈(한일은행도산로지점장)
- 박성혜(공무원)
- 강신임(서문여고 교사)
- 함현호(한일은행과장)
- 필자
- 차선영(대학원생)
- 이언숙(공무원)
- 하태공(공무원)
- 강경구(인쇄업)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런 분위기를 해치는 자는 가차없이 제명에 처하는 엄격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는 것이 우리 산악회의 자랑이다. 일례로 회원의 결혼식이 있으면 모든 회원이 만사 제쳐 놓고 참석하며, 회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 교대로 문병하여 화목을 다진다. 또한 일요일 산행 후 월요일 오전이나 늦어도 화요일 오후까지 서로 서로 잊지 않고 안부 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산악회에 서도 볼 수 없는 정겨운 풍경일 것이다.

이러한 회풍을 만들기까지는 서회장의 각고가 서려 있다.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채찍질하며 물심양면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에 회원들 누구나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회원들은 한동안 적응하기 힘들어 하지만 일단

♡ 서울특별시 산악연맹
설재에서의 회원들



분위기에 젖어 들면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만다. 오죽하면 서회장의 별명이 서틀러(서태균+히틀러)가 되었을까? 그는 멋진 외모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산악회의 보물, 영원한 서틀러이다.

예우 산악회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한 사람 있다. 바로 하병훈 고문(현 한일은행도산로 지점장)이다. 야구 선수 출신의 흰칠한 키에

특유의 유머 감각이 우리를 늘 즐겁게 한다.

언뜻 들으면 과격한(?) 언어 표현과 몸놀림이 처음 대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애정과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다. 우리는 그를 하플레웅(하병훈+나플레웅)이라 부르며 서틀러와 함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혹독한 훈련이다. 가끔씩 산행 시간(주로 새벽)에 지각하는 회원이 생기면 그날은 전 회원 구보이다.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낭을 메고 구렁에 맞춰 뛰어야 한다.

‘요즘 그렇게 시키면 도망갈 사람 많겠네’ 하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때로는 그런 기합을 통해 다시 한번 모임을 결속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더불어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작년 9월 우리 회원은 1박 2일로 치악산을 다녀 왔다. 민박을 정하고 저녁식사 후 산책 겸 야유회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밤 12시경 숙소로 돌아오니 일찍부터 잠자리에 든 몇몇 회원들이 방을 차지하고 큰대자로 벌린 채 숙면에 빠져 있었다. 여자 회원들이 막 씻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우아한(?) 노크 소리와 함께 베개를 가슴에 안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서틀러 씨. 동침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회원들은 기절할 지경인데, 발 디딜 틈도 없으니 어디에 거구를 뉘겠느냐고 통사정을하며 누구의 허락도 없이 그냥 자리를 잡으셨는데 회오리 바람 부는 소리에 그 방의 누구도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또 누가 누구의 발고란내를 맡고 하룻밤을 보냈는지도 내내 웃음거리로 남아 있다.

이렇게 술한 이야기거리를 남기며 쑥쑥 자라나는 예우 산악회는 그런 추억을 거름 삼아 내일을 향해 오늘도 한걸음 힘차게 내딛고 있다. ●